

메시지 1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안에서 주님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을 봄

성경말씀: 시 2:1-12; 24:1-10; 단 9:24-27

- I. 우리는 시편 2 편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다. 시편 2 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 찬송한다. 시편 2 편에 ‘경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계시와 실재는 있다—2, 6-9, 12 절.
- A.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메시아-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도록 기름부음 받으셨다—2 절, 단 9:26; 요 1:41.
 - B. 끊어지신 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단 9:26),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만아들로 태어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시 2:7; 행 13:33; 히 1:5-6).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분이 되심을 위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고전 15:45).
 - C.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분이 되심으로,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늘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왕으로 취임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셨다—행 2:36; 5:31; 계 1:5a.
 - 1. 이 왕국이 포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업인 모든 민족들과 그리스도의 소유인 땅 끝까지이다—시 2:8; 마 28:18-20.
 - 2. 결국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 안에서 쇠 지팡이를 가지고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시 2:9; 계 19:15.
 - D. 시편 2 편 10-12 절은 세상에 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가오는 노여움에 관한 경고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노여움 안에서 세상에 관하여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시는 때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행 2:20; 고전 5:5; 살전 5:2; 살후 2:2; 벰후 3:10), 이는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다 (벰후 3:12).
 - E.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시 2:11; 행 17:30).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 1. 아들께 피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 보호, 은신처로 취함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다 (요 3:16, 36).
 - 2.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요 14:21, 23). 주님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 1:12).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들이 주님 안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두 요구조건들이다.
- II. 시편 24 편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온 땅을 다시 얻으실 왕으로 계시한다—1-10 절.
- A.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소유로 주어진 (시 2:8) 땅을 손에 넣으실 것이고 (계 10:1-2),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단 2:34-35; 계 11:15).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강탈해간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 B. 이 시편에 언급된 산은 도시를 암시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시 24:3; 비교 30:7 과 각주.
 - 1. 비록 주님께서 땅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1 절), 오늘날 땅은 그분의 대적이 강탈했다.
 - 2. 하지만 이 강탈된 땅 위에 여호와와 산, 즉 시온 산이 있다 (2:6). 이 산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열려 있고 절대적으로 그분께서 소유하신다 (1, 3, 7-10 절).

3.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시려 돌아오시기 위해 통과하실 교두보이다—시 48:2 와 각주; 단 2:34-35.

C. 시편 24 편의 7-10 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다가오시는 왕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밝혀준다.

1. 7 절은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어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라고 말한다. 성문들은 민족들의 도시들에 속한 것이고, 문들이 사람들의 집들에 속한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보배이시다 (학개 2:7). 모든 민족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의 개념에 따라 곧 오지 않으실 것이다 (벧후 3:8-9).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기다리며 오래 견딤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3. 영광의 왕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즉, 승리하시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시 24:7-10; 눅 21:27; 마 25:31.

a.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시고 (마 1:21 과 각주), 예수님께서서는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하신다 (계 5:5).

b. 그분께서는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시 위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실 분이시다—단 2:34-35; 7:13-14; 율 3:11; 계 11:15; 19:13-14.

III. 다니엘 9 장 24-27 절의 칠십 주에 관한 예언은 주님의 오심의 날이 아주 가까움을 보여준다. 칠십 주는 세 부분으로 나뉘지고, 한 주는 칠 년이다—비교. 벧후 1:19.

A. 첫째, 칠 주는 (사십구 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축하라는 조서의 공포부터 (느 2:1-8) 재건축의 완성까지 할당되었다.

B. 둘째, 육십이 주는 (434 년) 예루살렘의 재건축의 완성부터 메시아의 끊어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까지 할당되었다—단 9:26.

C. 셋째, 마지막 칠 년을 이루는 한 주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은 언약을 맺는 것을 위해 있다 (27 절). 그 한 주의 중간에 그는 언약을 깰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의무를 끝낼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박해할 것이다 (27 절; 계 13). 이것이 대환난의 시작일 것인데, 이는 삼 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

1. 이처럼 강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칠 년의 조약에 서명한다는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마 24:32-44.

2. 대환난이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우상으로 성전에 세워질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앉을 것이며 모든 숭배의 대상보다도 자신을 높일 것이다. 이것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이 반드시 재건축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5, 21 절; 계 13:14-15; 살전 2:3-4; 단 11:36-37.

D. 칠십 주의 첫 육십구 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는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비밀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이다—엡 3:3-11; 5:32; 골 1:27.

1. 이 시대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 안에서 은밀하고 비밀하게 그분의 몸과 그분의 신부가 될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엡 5:25-32.

2. 칠십 주의 마지막 주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 즉 그분의 신부 군대와 함께 치는 돌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부수시고 큰 산,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어 온 땅을 채우실 것이다—단 2:34-35; 살후 2:8; 계 19:19-20.

메세지 2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는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임재임

성경말씀: 마 24:3, 40-44; 계 3:3; 10:1; 16:15; 마 24:27; 살후 2:8; 슥 14:4; 계 14:1;
요 15:4; 창 5:21-24; 요일 2:28

I. 우리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임재, 오심)에 관하여 성경에 나타난 신성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다:

- A.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믿는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임재이다—마 24:3, 27, 37, 39:
1. ‘파루시아’는 오심이라는 헬라어로 “임재”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높이 올려지신 분의 오심(임재)을 위해 사용되었다.
 2.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믿는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임재가 될 것이다.
 - a.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긴 하지만, 그분의 완전한 임재는 아니다—찬송가 758 장.
 - b.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물질적으로 볼수는 없지만 (벧전 1:8), 언젠가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분을 물질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B. 그리스도의 두번째 오심은, 그분의 파루시아, 사내 아이와 첫 열매들이 하늘로 휴거됨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성도들이 함께 땅 위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마 24:27; 살후 2:8):
1. 주님의 파루시아는 아마도 대환란 때 약 마지막 3년 반 기간에 있을 것이다—단 9:24-27; 12:7; 마 24:21; 계 11:2-3; 12:14.
 2. 주님의 파루시아는 대환란의 3년 반 전에 이기는자들의 휴거로부터 시작할 것이다—사내아이로 (계 12:5) 예표된 죽은 이기는 성도들과 첫 열매인 (14:1-4)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
 3. 주님의 이 파루시아는 땅 위에 나타남으로 끝날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살후 2:8; 마 24:27; 계 1:7; 슥 12:10-14; 14:4; 행 1:11-12.
- C.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분의 오심은, 하늘들에서 비밀스런 방면을 가질 것이다—마 24:40-44; 계 3:3; 10:1; 16:15:
1. 주님의 파루시아, 그분의 임재는,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중으로 여행하실 것이다—계 10:1.
 2. 그분의 파루시아가 일어나는 중에, 그리스도는 세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 (살전 4:16-17; 계 14:14-16), 그분의 심판대에서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심 (고후 5:10; 고전 4:5; 마 25:19; 눅 19:15; 롬 14:10, 12), 그리고 그분의 이기는 자들과의 결혼이다 (19:7-9).
- D.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분의 오심은 땅에서 공개적인 방면을 가질 것이다—마 24:27; 살후 2:8; 슥 14:4:
1. 그리스도의 오심의 공개적인 방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슥 12:10-11; 계 1:7). 그리스도는 그분의 새로 결혼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패배시키고 멸망시키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19:11-21; 17:14; 14:17-20). 그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구원할 것이다 (롬 11:26-27; 슥 12:10-14).
 2. 주님의 오심은 이 땅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에서 땅 위에 열국 백성이 될 “양”을 준비시킬 것이다—마 25:31-46.

3. 그리스도의 오심의 공개적인 방면에서, 그분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던져지게 하실 것이다—계 20:1-3.
4.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시고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세울 것이다—단 7:13-14; 눅 19:12; 계 11:15; 20:4, 6.

II.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 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 가려면 우리는 오늘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계 14:1:

-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거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이다—요 15:4:
 1.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요 15:4).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다.
 2.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오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4 절.
 3.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누림의 위치 안으로 넣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누림 자체이다.
- B. 에녹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휴거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본을 제공해준다—창 5:21-24:
 1. 에녹의 삶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창 5:22, 24:
 - a.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갈망에 따라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며, 현재 시대를 따라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비교. 시 19:12-13; 수 9:14b; 눅 24:15-17.
 - b.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살고 일을 행하고,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롬 8:4, 13-14; 갈 2:2a; 고후 5:14-15.
 - c.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고후 5:7; 히 11:5-6, 1-2; 고후 4:13, 18.
 2. 에녹은 계속적으로 위를 향해 삼백년 동안 밤 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때까지 매일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었다—창 5:24; 비교. 아 8:5 상.
 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헬라어를 직역하면, “오실 때에”는 “임재 때에”를 의미한다. “임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인데, 이것은 온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a. 휴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 b. 이러한 사랑의 태도는 휴거되는 것의 준비, 조건이자 기초이다.

III.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헬라어 파루시아]”—요일 2:28:

- A.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에 의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담대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비교. 마 25:30.
- B. 우리가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일 2:27), 우리는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28 절):
 1. 헬라어를 직역하면, “오실 때에”는 “임재 때에”를 의미한다. “임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인데, 이것은 온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 주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께 첫 번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산다면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지겠는가?
3. 그분이 나타나실 때,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을 다루신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밖에 놓인다는 의미이다—28 절:
 - a.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한 믿는 이는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이지만 수치를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이 수치는 그에게 다름이며 징계이다.
 - b. 이것은 멸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수치의 표시와 같다 (창 19:15-17, 26; 눅 17:32).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

IV.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 예수님, 나로 당신의 임재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활 문제의 어떤 종류의 얽매임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주의를 당신에게만 쓸 수 있도록 단순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도적 같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위치의 변화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 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삼층천에 있을 것이다.

메시지 3

주님의 오심의 징조

성경말씀: 마 24:3, 7-8; 딤후 3:1-5; 야 5:3; 눅 17:26-28; 딤펢. 4:1; 딤후 4:3-4; 뵤후 3:3-4; 눅 18:8; 마 24:14, 32-33; 살전 5:3; 살후 2:3, 7; 마 24:15; 눅 21:25-26

I.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마 24:3:

- A. 주님의 두 번째 오심과 관련된 징조들이 있다. 이 징조들은 우리가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의하고 준비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
- B. 우리가 이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II.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마 24:7-8:

- A.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은 내전을 가리키고, 왕국이 왕국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은 국제전을 가리킨다. 이 두 종류의 싸움은 마지막 때에 자주 일어날 것이다. 역사는 또한 기근이 전쟁 뒤에 오는 것을 보여준다.
- B. 더욱이, 주님이 지진에 관해 말씀하실 때 지진은 매우 적게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 지진은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재앙들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이다.

III.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뽀내고, 거만하며, 혈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딤후 3:1-5:

- A. 이 구절에서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때부터 시작하여(뵤전 1:20)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지속될 현시대(뵤후 3:3, 유 18)를 가리킨다.
- B. 이 예언적인 그림은 비그리스도인 사회의 악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락한 기독교의 부패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딤후 2:20; 3:5).
- C.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는 일곱 종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급된다—딤후 3:2-4; 딤펢 6:10; 딤 1:8; 2:4:
 - 1.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거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온 존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 2. 교회가 승리하여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여 비통한 날들이 오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에 달려 있다—비교. 계 2:4.
 - 3. 교회가 승리하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IV. “노아의 때가 그러하였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눅 17:26-28:

- A.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은 어그러지고 비뿔어진 시대에 살았던 노아의 때의 상황과 같을 것이다. 그 때에 타락한 사람의 하나님 없는 문화는 악하고, 어그러지고 비뿔어진 세대를 산출해 냈고, 어둠의 악한 능력이 이 땅을 부패시키고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창 6:1-22.
- B.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게 여기셨다—마 24:37-39; 눅 17:26-27:

1. 홍수 전의 노아 세대와 소돔이 멸망하기 전의 롯 세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생활 상태는 주님의 파루시아와 대환난 전에 있을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 상태를 묘사한다—마 24:21, 3, 27, 37, 39.
2. 우리가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오늘날 인간 생활의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한다—눅 21:34-36.

V.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마 24:14:

- A. 이 시대가 종결되는 가장 중요한 징조는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 B. 은혜의 복음(행 20:24)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계 1:9) 안으로 이끈다.
 1.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반면,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마 24:14.
 2. 은혜의 복음은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지만, 왕국 복음은 아니다. 은혜의 복음은 낮은 복음이지만 왕국 복음은 가장 높은 복음이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더 높은 복음이 모든 대륙에 전달될 것이다.

VI.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에게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마 24:32-33:

- A.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마태복음 21:18-20 절에서 무화과나무는 주님의 의해 저주를 받았고,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라 버렸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흩어졌다.
- B. 무화과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또다른 징조이다.

VII. “먼저 변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살후 2:3, 7:

- A.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변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 B. 비록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이 이 땅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변질로 가득하다.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VIII. 주님께서 어떤 외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분이 돌아오실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마 24:36:

- A. 외적인 징조들은 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복원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회복됨, 그리고 성전이 재건축됨과 관련된다. 이 세 가지 징조들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면 일부 성도들을 데려가실 때까지 비밀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 B.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세 가지 위대한 징조들 중 두 가지의 성취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커다란 책임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 우리로 깨어 있고, 경고를 받고, 늘 기도하는 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 안에서 살고, 항상 당신의 임재 안에 행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당신이 오실 때 삼층천으로 올려질 것입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 4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믿는 이들의 온전한 태도

성경구절: 딤후 4:8; 빌 3:20; 살전 1:10; 계 22:20; 벨후 1:19; 마 24:32-33, 42-44; 25:13; 눅 21:34-36; 계 3:10; 마 25:4, 10; 24:45-51; 25:19-30; 고전 3:10-17; 계 16:15

I.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딤후 4:8:

- A. 신약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생활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후 5:9-10:
1.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친척이 곧 돌아올 것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과 같다. 또한 결혼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가 그날이 오기만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찬송가 758 번, 영한동번 1314 번.
 2.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살았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다—살전 1:10; 2:19; 3:13; 4:15-17; 5:23.
- B. 주님의 나타나심, 곧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경고와 격려, 그리고 상급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간절한 기대와 기쁨으로 그것을 고대해야 한다—딤후 4:1, 8, 그리고 각주 8⁵.

II. 우리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한다—빌 3:20; 살전 1:10; 고전 7:29-31; 영한동번 710 번:

- A.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는 그분과 함께 있다—빌 3:20; 살전 1:10.
- B. 고린도전서 7 장에서 바울은 “형제님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이제부터 아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며,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9-31 절).

III. 우리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외쳐야 한다—아 8:14; 계 22:20; 찬송가 760 장:

- A. 우리는 주님의 돌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부름으로 그분께 기도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계 22:20).
- B. 우리는 항상 그분의 다시 오심을 외쳐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돌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된다.

IV. 우리는 날이 새어 셋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벨후 1:19:

- A.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등불과 같아서,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우리의 어두움에 비춤으로 우리를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타나실 날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곧, 날이 새는 새벽녘으로 이끄는 것이다.
- B. 해로서 비추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의 발자취를 밝혀줄 그분의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

V. 우리는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마 24:42-43; 25:13:

- A.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면 데려가지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뒤에 남겨질 것이다—마 24:36-44.
- B. 깨어 있는 것과 예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성숙해지는 길이다. 누군가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성숙하였을 것이다—마 25:1-13.

VI.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억눌려 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대환난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눅 21:34-36:

- A.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억눌려 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다.
- B.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가 피하려면, 다만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구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깨어서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 C.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대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우리 구주 앞에 설 것이다—비교. 계 12:5-6, 14.

VII. 우리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시련의 때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계 3:10:

- A. 주님의 인내의 말씀은 주님의 고난의 말씀이다.
 - 1.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며 거절과 핍박을 견디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내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계 1:9.
 - 2.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당하신 거절과 핍박을 견뎌야 한다.
- B.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온 땅에 닥쳐 올 대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고 지켜질 것이다—계 3:10.

VIII. 우리는 현명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마 25:1-10:

- A. 마태복음 25 장은 현명한 처녀들이 신랑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깨어서 기다리는지 보여 준다.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 그릇에 기름을 담은 등을 가지고 간다. 그러므로 신랑이 올 때 그들은 그와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1-10 절.
- B. 믿는 이들인 우리는 순수한 처녀들과 같다 (고후 11:2). 이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증거하고 있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다.
- C.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 뿐 아니라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적셔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결혼 잔치의 닫힌 문 밖에 놓이지 않기 위함이다—롬 8:6-11; 고후 3:18; 마 25:6-13.

IX. 우리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야 한다—마 25:14-30:

- A. 한 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현명한 처녀들이 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이 될 필요가 있다.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을 나타내고, 노예들은 봉사 방면을 나타낸다.
- B. 마태복음 24, 25 장에서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는 길을 알려 준다. 곧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기능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보상을 잃어 버리고 대신에 받을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마 24:45-51; 25:14-30.

X.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기초 위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전 3:10-17:

- A.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는 나무, 풀, 짚과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사람의 재료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전 3:12.
- B. 대신에, 우리는 금, 은, 보석인 삼일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미덕을 가진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건축물은 태워지고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전 3:12-15.

메시지 5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

성경구절: 골 1:27; 3:4; 롬 8:18, 21, 23; 엡 1:13-14; 빌 3:21; 살후 1:10; 히 2:10;
요일 3:10; 살전 1:3, 10; 2:19-20; 3:13; 5:1-11, 23

I.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골 1:27; 3:4; 살후 1:10; 요일 3:2; 찬송가 764 장:

- A. 영화롭게 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서, 형상을 이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롬 8:18, 21; 히 2:20; 벧전 5:10:
1.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형상을 소유하는 데에 이르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 a. 거듭남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 (엡 1:13). 이 인치시는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시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신다.
 - b. 이 인치시는 영의 인치심은 마치 잉크의 스며듬과 같아서, 우리의 일생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요소로 우리를 속으로부터 적시셔서 결국은 우리 몸의 구속을 가져오는데 (엡 4:30; 롬 8:23), 이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다.
 - c. 휴거의 때에, 곧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된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질 것이다—롬 8:30; 히 2:10.
 - d.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생동안 적셔짐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서부터 영화롭게 될 것이며, 밖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짐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화롭게 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을 소유하는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의 체험의 완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 a.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그분의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b.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영광이 우리 존재를 적시고 우리 몸에 나타날 때까지, 영광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분의 일을 단계적으로 계속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은 그 완결에 이르게 된다.
 - c. 우리의 영화롭게 됨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가장 높은 분 것이다—갈 4:5; 롬 8:23.
 - d.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완결은 신성과 인성의 연결과 연합의 우주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된 세 부분으로 된 선민들과 합병되신 것이다—계 21:2, 9-10 상.
- B.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한 면으로는 주님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이며 (계 10:1; 마 25:31), 다른 한 면으로는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살후 1:10):
1.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지체들 안에서부터 나타나실 것임을 의미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놀라며, 감탄하며, 기이히 여길 것이다—살후 1:10.
 2. 주님의 오심은 하늘에서 땅으로 또한 우리 속에서부터 동시에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오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함이다.

- C.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고후 5:4-5:
1. 바울은 그의 영이 거듭난 것과 그의 혼이 변화된 것을 알았으나, 아직 그의 몸이 변형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몸의 구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2. 5 절에서 ‘다듬으시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형태를 이루시며, 모양(외형)을 잡히게 하시며, 예비하시며, 적합하게 하시며, 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이 그분의 부활 생명에 삼켜지도록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형태를 이루시고, 외형을 지니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적합하게 하셨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옷 입히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변형된 몸을 입으려면,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한다:
 - a. 하나님은 몸을 모양 잡히게 하고 계시지 않다. 그분은 우리가 부활한 몸에 꼭 맞도록 우리를 모양 잡히게 하고 예비하신다—고후 5:5.
 - b.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심으로 모양(외형)을 이루신다—행 2:38; 롬 8:6; 고후 3:18.
 - c.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모양 잡혀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 의해 완전히 모양 잡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모양 잡혀지는 것이 필요하다.

II. 데살로니가전서 1 장과 2 장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소망으로 계시되신다—살전 1:3, 10; 2:19-20; 3:13; 5:1-11, 23:

- A.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시다. 그리스도의 뚜렷한 임재가 없는 교회는 마치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남편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살전 1:3; 아 8:14; 비교. 엡 5:25-27:
1.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망이 우리의 인내의 원인이다—살전 1:3.
 2. 오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기대이신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분이시다—살전 1:10; 롬 2:5-9.
 3.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함으로써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이 우리의 소망, 기쁨, 면류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상급이다—살전 2:19-20.
 4. 그리스도의 오심은 또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되어 하는 원인이다—살전 3:13.
 5.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깨어 있음의 원인이다—살전 5:1-11.
 6.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원인이다—살전 5:23.
- B.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나 이 세대에 있지 않음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대신에, 우리의 소망은 오시는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장래도 그분 안에 있다—살전 1:10:
1. 우리의 장래와 운명과 목적지는 모두 장차 오실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2.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위의 어떤 사람이나 사안이나 사물에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시는 주님께 있어야 한다.
 3.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둘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이기는 믿는 이가 되는 방법이다.